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스팟 리포타주 : **Graffiti art**

글/사진 : 이성재

그래피티

Graffiti 그래피티



## 그래피티 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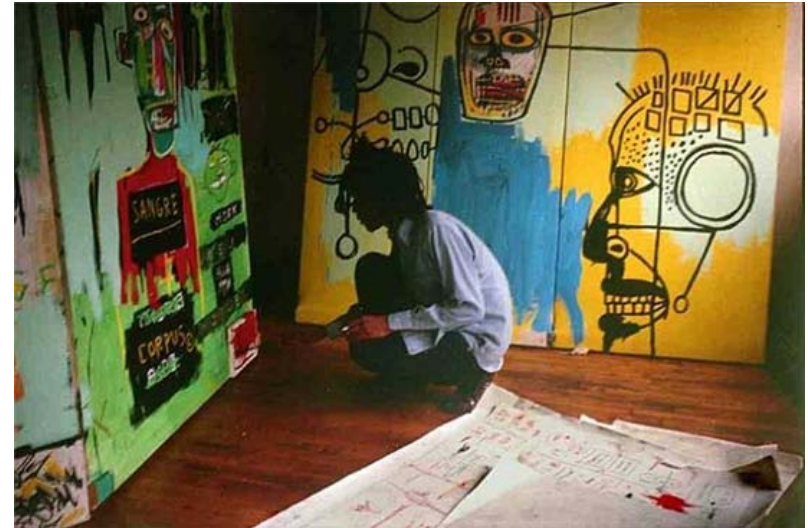
길거리에서 시작한 문화라고 하여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고나 상업적 이용 가치가 적다는 편견은 무너져버린 지 오래되었다. 그래피티는 팝 아트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응용하여 제품에 적용, 일반 소비재 뿐만 아니라 럭셔리 마켓에서도 그 활용을 확장 한다.



그래피티(graffiti)의 어원은 이탈리아어의 그래피토(graffito)와 그리스어 'sgraffito'의 합성어이다. 길거리에서 합법적인 아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붓과 페인트가 아닌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는 컬러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화로 시작 하였다. 그래서 그래피티를 'spray can art' 또는 'aerosol art'라고 지칭 하기도 한다.

그래피티란 모든 종류의 대중이 만든 간단한 단어에서부터 공들여 만든 그림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예술성의 유무(有無)의 구분이 아닌 만든자의 이름이 주요한 것이 아닌 일반인들 즉,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피티 자체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실 그래피티는 고대부터 시작이 되었고, 교과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벽화가 그 예이다. 동서를 구분할 것 없이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벽화는 우리나라의 유적에서도 발견된다.

그래피티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뉴욕의 뒷골목 벽에 낙서가 많아지면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사회 불만을 갖고 있는 흑인, 청소년 등이 그래피티 문화를 주도하였다. 벽에 낙서를 하는 것을 불법이었고,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프레이를 택하게 된다. 속도감, 자유, 원색의 조화는 전통적인 미술과는 다른 익살스럽고, 얽매이지 않은 문화를 표출하게 된다. 벽에서 시작하여 경기장, 테니스장, 지하철 등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곳에 낙서가 생겨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 오히려 대중에게 어필하게 되었다. 그래피티를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하는 데에는 영향을 준 아티스트로는 미셸 바스키아, 키스 해링을 꼽을 수 있다.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  
사진 : Stephen torton



키스 해링

## 영국의 그라피티 아티스트 뱅시(Banksy)

스텐실 기법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그라피티 아티스트가 있다.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될 정도로 전세계에 이슈거리가 된다. 사회적인 이슈를 풍자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신선한 아이디어로 지나치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그의 영향을 받아 전세계 많은 그라피티 아티스트들이 그의 스텐실 기법을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천문학적 단위로 거래가 된다. 하지만 누구인지 얼굴은 알려지지 않은 베일에 쌓인 뱅시는 신비주의로 통한다.





## 서울 압구정 한양아파트 한강고수부지 연결 도로

현재 수준 있는 그래피티가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압구정 한양아파트와 한강고수부지를 이어주는 굴다리에 있다.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 굴다리 전체가 그래피티로 칠해져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매우 높다. 아트웍부터 태깅을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전달 하려는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래피티의 느낌이나 형식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나타내려는 의도는 확실하게 보인다.

